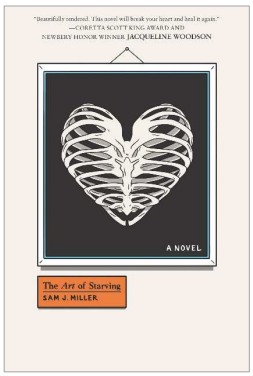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ART OF STARVING
가제 : 단식의 기술
저자 : Sam J. Miller
출판사: HarperTeen
발행일: 2017년 7월 11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상처와 멍, 처참히 망가진 러브스토리에 관한 책이다. 모든 단어가 충격을 주고, 그 충격들이 모두 성가로 들린다. 진실의 느낌과 냄새, 맛을 묘사하고, 그것이 거대한 괴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베스트셀러 뷰티풀 크리처스 시리즈의 작가, 마거릿 스톨**

*** "초자연적 힘을 이용한 복수, 자멸의 과정을 그린 어둡고 사랑스러운 이야기" – 커커스 리뷰**

*** "아름다운 이야기. 이 소설은 여러분의 마음을 부수고 다시 치유해줄 것이다." – 코레타 스캇킹 상 수상자, 재클린 우드슨**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특히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 세상이나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일 때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도 한다. 정신을 다른 곳을 돌리기 위한 애처로운 발버둥은 스스로를 덜 미워하기 위한 애타는 노력인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놀림 받는 뚱뚱한 남학생, 게이지만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이 너무 싫은 매트는 인생의 버팀목이자 우상이던 누나 마야가 홀연히 사라진 후, 반드시 누나의 행방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태가 된다. 어떻게든 단서를 찾겠다는 매트의 의지는 엉뚱하게도 극단적인 단식으로 이어지고, 어질어질할 만큼 쫄쫄 굶었을 때 나타나는 신체의 감각 변화를 뜻밖의 '초능력'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우리 몸에 남아 있는 원시적인 욕구일 뿐이라고 결론지은 매트는 책 서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터득한 '단식 기술'을 공개하겠노라고 선언한다. 매일 섭취한 열량을 꼼꼼히 계산하고 단식의 규칙을 하나씩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궁지에 몰린 열일곱 살 게이 소년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고된 현실, 상처 가득한 고통의 기록이자, 자신의 몸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매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이야기다.

뉴욕 북부의 시골 작은 마을에서 엄마와 단둘이 사는 매트는 자신의 이름부터 몸매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컴퓨터 바탕화면을 가득 채운 미소년들, 몸매 좋은 멋

진 남자들이 매트가 동경하는 대상이지만 그런 흠모의 대상들에 심취하면 할수록 스스로가 더 역겹게 느껴진다. 하필 그런 화보에나 나올 법한 소년을 학교에서 매일 마주치는 바람에 매트의 자기 혐오는 날마다 극심해져만 갔다. 조각같이 잘 생긴 허드슨 고등학교 축구부 스타, 타리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바스티엔, 오트와 함께 3대 꽃미남으로 통하는 이들은 모든 여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지나가기만 해도 모두 힐끔거리는 존재들이었다. 바스티엔과 오트는 그 인기를 악용하여 여학생들의 외모에 점수를 매기고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을 못살게 구는 못된 망나니가 되어가는 반면, 타리크는 매트의 눈에 '영락없이 착한 사람'이었다. 두 친구가 악랄한 장난을 쳐도 옆에서 선한 눈으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타리크의 완벽한 복근과 떡 벌어진 가슴, 귀여운 매력을 더하는 보조개와 큼직한 코에 매트는 푹 빠져 있었다. 타리크에게 반한 건 매트의 누나, 마야도 마찬가지였다.

마야 누나가 잘 있으라는 작별 인사 한 마디 없이 별안간 사라져버린 그날 밤, 타리크와 만났다는 사실을 매트는 알고 있었다. 평소 밴드 활동을 하던 누나는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던 대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사는 밴드 멤버와 만나 새로운 곡을 녹음하기 위해 잠시 집을 떠난 것일 수도 있지만, 연락도 없이 갔다는 것이 매트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 날 이후,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쩐지 타리크의 눈빛에 죄책감이 떠오른다고 느낀 매트는 누나가 사라진 날, 그가 뭔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누나에게 한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왜 평소와 달리 타리크의 눈에 부끄러움과 후회, 억눌린 분노가 느껴질까? 매트가 모르는 사이 누나와 타리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매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비밀을 밝혀내리라 다짐한다.

한편 뚱뚱하고 볼품 없는 몸매가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큰 이유라고 생각한 매트는 먹는 양을 급격히 줄이기 시작하고, 극심한 허기에 시달리던 중 뜻밖의 사실을 깨닫는다. 심하게 배가 고플 때, 청각과 후각, 시각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리고, 평소 보이지 않던 진실이 눈에 보이고, 심지어 자신이 말한 대로 상대방이 움직이게 만드는 신기한 영향력까지 생긴다고 느낀 매트는 굶어야 이 '초능력'이 생긴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사라진 누나의 행방을 찾기 위해 타리크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끄집어내는 데 이 특별한 능력을 이용한다. 매트가 깨닫는 단식의 기술은 점점 늘어가고, 거식증으로 인한 환각이 이어지면서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매트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이 이어진다. 과연 매트는 스스로 기발하다고 평가한 이 '기술'로 누나를 찾을 수 있을까? 무거운 주제를 독특한 주인공의 풍자와 위트로 독특하게 풀어낸 매트의 이야기는 작가가 자신의 십대 시절 경험을 토대로 썼다고 밝혀 더욱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저자 소개>

샘 J. 밀러(Sam J. Miller)는 영화 평론가, 지역 운동가, 비서, 화가 보조, 모델, 록밴드 기타리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다. 클래리온 작가 워크숍(Clarion Writers Workshop)에서 글쓰기를 공부하고, 네뷸라 상(Nebula Award), 테오도어 스터전 상(Theodore Sturgeon Award), 휴고 상(Hugo Award) 후보에 올랐으며 셜리 잭슨 상(Shirley Jackson Award)을 수상했다.

제목 : THE WONDERING
가제 : 원더링
저자 : Mira Bartok
출판사: Walker Books Ltd
발행일: 2017년 9월 28일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20*세기 폭스사 제작, <빌리 엘리어트>의 오스카 후보에 오른 영화감독 스티븐 달드리가 감독을 맡아 영화로 제작될 예정**

*** "희망과 감성이 가득하다. 친구처럼 친숙하면서도 독특한 이야기" – 『*Girl of Ink and Stars*』의 작가 키란 밀우드 하그레이브**

*** "사랑스럽고 섬세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상상력 넘치는 모험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마음을 사로 잡는 이야기, 큰 소리로 읽어도 좋은 책이다." – 「커커스 리뷰」**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느 시대, 사람과 동물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있다. 몸의 절반은 사람이지만 다른 절반은 새나 고양이 등 동물의 특징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이 신기한 반인반수는 '그라운들링'으로 불리며 인간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힘들게 살아간다. 지위가 훨씬 높은 순수한 인간들과 달리 종이 섞인 혼성들은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한다. 이제 겨우 열한 살인 '13번'도 예외가 아니다. 반은 사람, 반은 여우인 '13번'은 제대로 된 이름도 없이 이렇게 번호로 불리며 매일 새벽같이 공장에 출근해서 힘들게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장 일은 부모도, 살 집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얹혀 사는 고아원에 비하면 훨씬 낳은 편이다. '미스 카벙클의 쓸모 없고 잘못 태어난 존재들을 위한 집'이라는 기분 나쁜 이름을 가진 이 고아원은 사악하고 폭압적인 원장 미스 카벙클과 오로지 원장 말에만 복종할 뿐 고아들을 매정하게 괴롭히는 조수 미스터 스티즈위드가 운영하는 곳이다. 13번은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전혀 모른 채 늘 이 고아원에서 지내 왔다. 남은 거라곤 갓난아기 때 몸을 감싸고 있던 담요 조각, 그리고 자그마한 금색 열쇠가 전부였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밤하늘을 타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둥둥 떠다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그게 전부였다. 갈 곳이 없어 힘든 고아원과 공장 일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13번에게 어느 날 뜻밖의 친구가 생긴다. 기나긴 모험이 시작되는 출발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귀가 하나밖에 없는 13번을 평소에도 '귀머거리에 벙어리'라고 마구 놀려대고 온갖 못된 장난으로 괴롭히던 또 한 명의 그라운들링, 반은 사람 반은 쥐인 와이어가 어느 날 날개 없는 새 한 마리를 잔인하게 찔러대는 것을 본 13번은 깜짝 놀라 새가 달아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트링켓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그 불쌍한 새는 그 날부터 13번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된다. 늘 풀이 죽어 있는 13번에게 전설 속 용감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준 트링켓은 '아더'라는 멋진 새 이름

까지 지어주며 늘 13번의 곁을 지킨다.

사실 13번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벽 뒤에서 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꿀벌이 꽃에 앉아 꿀을 맛있게 쪽쪽 빨아 먹는 소리,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새가 우는 소리까지 들렸다. 외로울 때마다 누구도 듣지 못하는 이런 소리에 집중하며 마음을 달래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고달픈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자신은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트링켓을 통해 그라운들링들이 모여 사는 마을의 저 높은 벽을 넘어가면 인간들이 사는 놀라운 세상이 있고, 그곳은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처음 접하면서 13번에게도 목표가 생긴다. 못된 고아원 원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담장 넘어 미지의 세계로, '루멘타운'이라 불리는 그 도시로 가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트링켓의 도움으로 끝까지 뒤쫓는 원장과 그 무리를 피해 마침내 루멘타운으로 달아나는 데 성공한 13번은 그곳에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리라 다짐했지만, 낯선 도시는 생각했던 것처럼 따스하고 이상적인 곳이 아니었다. 결국 이곳에서도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사악한 무리들에게 거듭 쫓기던 13번은 우연히 떠나온 고아원의 원장, 미스 카벙클의 비밀을 알게 된다. 순수한 인간인 줄 알았던 카벙클은 사실 반은 사람, 반은 새로 트링켓과 같은 그라운들링이었다! 카벙클이 여태 깃털 가득한 머리를 꽁꽁 숨기고 지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녀가 어떻게든 찾아내려는 쌍둥이 여동생, 피비 나이팅게일의 행방을 크링켓과 13번이 알아낸 것이다. 절친했던 두 자매가 남처럼 멀어져 버린 먼 옛날의 사건, 피비가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애써온 많은 노력들을 카벙클이 모두 뒤집어버리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된 13번과 트링켓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자신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과연 13번은 카벙클의 사악한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인 이 판타지 세상 속 주인공의 이야기는 2편 <원더링: 쥐의 반란>과 3편 <원더링: 노래하는 나무>로 이어지며 상상력을 자극한다.

<저자 소개>

미라 바톡(Mira Bartók)은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회화를 공부하고 메사추세츠 대학교에서 소설로 예술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화가이자 작가로 활동하면서 쓴 회고록 『The Memory Palace』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2011년 NPR, 「시카고 트리뷴」, 「라이브러리 저널」, 「워싱턴 포스트」, 「커커스 리뷰」 등에서 최고의 도서로 선정된 데 이어 2012년에는 '전국 도서비평가협회상' 자서전 부문을 수상했다.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현재까지 50만 부 이상 판매된 아동서 『The Ancient and Living Culture』 시리즈와 소설 등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이탈리아, 노르웨이어 원작의 그림책을 편집, 번역하기도 했다.